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21째주 (5월 23일)

정교회 주보



성 알패오 사도

부활 후 제 4주일 / 중풍병자 주일

성 시네시오스 카르파시아 주교

제 3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1,2,3 응송 / 사도경 21~23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부활 입당송 / 부활절 예식서 38

•제 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성당 찬양송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사도경 : 사도행전 9:32~42 / 253, 봉독서 53

•복음경 : 요한 5:1~15 / 99, B 18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알패오 사도

우리 교회에서는 5월 26일 성 알패오 사도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알패오 사도의 생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패오인지 많은 교부들이 서로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이들(성 니코데모스를 포함하여)은 마태오 복음 사가의 형제

이고, 열 두 사도 중의 한 명인 알패오 야고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추측은 클레오파 알패오로 성모님의 친척인 마리아의 남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언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시작해야만 하나요?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한 아이가 교육 없이 나이가 들었을 때 성숙하고 완전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 여기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언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이 나쁘고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도 웃으면서 “괜찮아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더 크면 배울 겁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이가 자라면 너무 늦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작은 나무의 줄기는 쉽게 곧게 펴 수 있지만, 큰 나무의 줄기는 곧게 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자연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신경 써야 하는 의문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입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니가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에 대한 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소크라테스는 답변하기 전에 그녀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이는 몇 살입니까?”

“두 살입니다.”라고 그녀는 답변합니다.

그 때 위대한 철학자는 안타까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당신의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작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답변은 사람의 교육은 아주 일찍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아기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긍정적, 부정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기쁨과 슬픔, 평온함과 불안함의 감정을 아이도 엄마의 배속에 있으면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 파이시오스께서는 임신한 어머니들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 “기도하십시오, 부드럽고 겸손한 방법으로 예수 기도를 하십시오. 영적 책을 읽고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십시오. 배를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사랑해”라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배 속의 태아는 당신의 모성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아이가 태어나면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물질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합니다. 사도 바울로의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에페소6:4)라는 말씀에 따르는 확실하고 올바른 교육은 분명히 빠른 늦든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벽돌과 휠체어



젊고 잘나가는 회사원이 새로 산 외제차를 몰면서 약간 경사진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어딘가를 막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벽돌 하나가 날아와 차 옆쪽을 때렸습니다. 그는 차를 급정거하고는 화가 난 얼굴로 차에서 내려, 그곳에 있는 한 꼬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곤 냅다 큰 소리를 치면서 꼬마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차가 얼마짜린데... 야, 너 왜 그런거야!’

꼬마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지만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벽돌을 던졌고... 하지만 꼭 차를 세워야만 했기 때문에...’

꼬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도로 가장자리에 주저앉아있는 꼬마의 형이 있었습니다. ‘저의 형이에요. 굽어진 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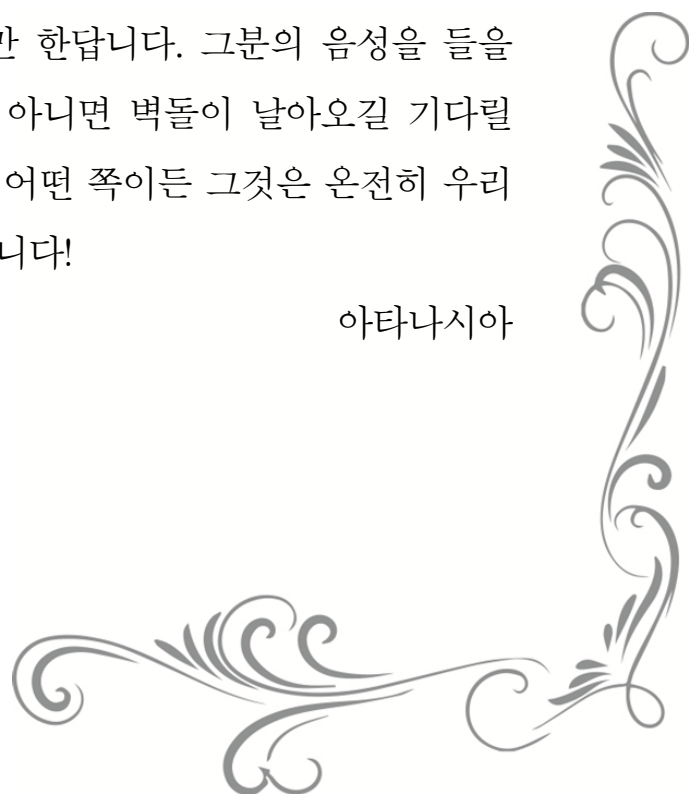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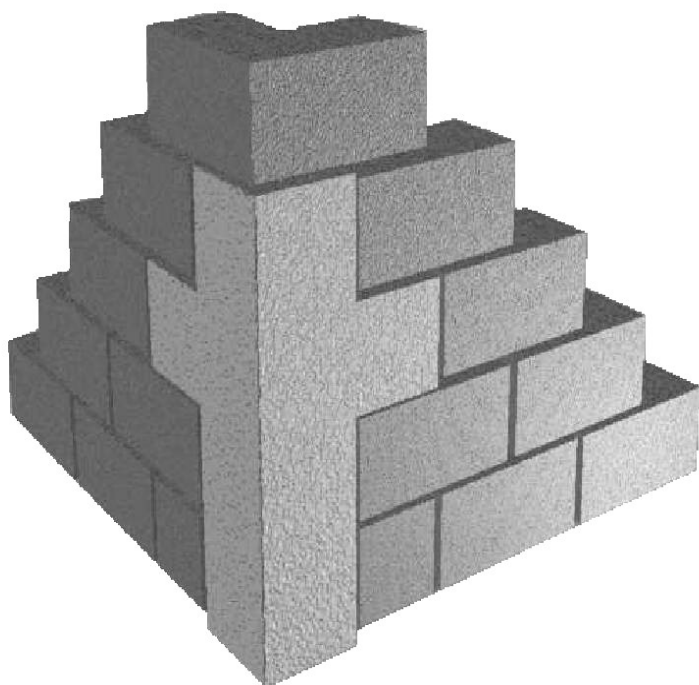
돌다가 그만 휠체어가 넘어지는 바람에... 저를 좀 도와주실래요? 형을 다시 휠체어에 앉힐 수 있게...’

젊은이는 서둘러 장애가 있는 꼬마의 형을 휠체어에 다시 앉히고는, 손수건을 꺼내서 살짝 굵힌 얼굴의 상처를 토닥여주었습니다. 꼬마는 젊은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조용히 휠체어를 밀며 떠나갔습니다. 젊은이는 멀어져가는 두 형제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 산 외제차 옆면에는 벽돌에 맞은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지만 그는 별로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벽돌 자국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너의 주의를 끌려고 벽돌을 던져야만 할 만큼 너무 빠르게만 인생을 살아가지는 마라!”

하느님은 우리 영혼에 속삭이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벽돌을 던지셔야만 한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벽돌이 날아오길 기다릴 것인가...? 어떤 쪽이든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밤 10시 기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밤 10시 기도에 모든 신자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매일 밤 10시에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있던 모두 함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슬라브 교인 구세주 변모 수도원 방문.

지난 5월 16일 주일에 로만 카프작 신부님과 슬라브 교인들은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여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아가티 수녀님과 함께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내부를 청소하고 정돈하였습니다.

다.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교회출판사

■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선정.

우리 정교회출판사의 새 책인 “아가강화”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죽음의 신비, 성 대 바실리오스, 부와 가난,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신성한 성찬예배, 향기로운 삶과 말씀, 신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 이콘 신학,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동방교회의 신비 신학, 성 실루아노스, 예수기도, 아토스 성산의 수도사들, 교부들의 영적 금언집》에 이어 이번이 열다섯 번째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로 선정되어 이 책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음성 파일로 들을 수 있고 점자로도 읽을 수 있도록 작업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느님께 영광 돌리며, 계속해서 이 거룩한 출판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간예식



5월 26일(수) 오순절 중앙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